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하리 이영선†
건양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애착과 또래 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권 소재의 2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 여 고등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학생-교사 애착관계 도구(STARS), 또래애착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교사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려움과 역경 상황에서 교사와 또래의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청소년, 교사애착, 또래애착,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 본 연구는 이영선의 지도로 이루어진 이하리(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선,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320-711)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 041-730-5456, Email : s2coun11@konyang.ac.kr

서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인간에게 있어 대인관계는 인생의 전부라고 할만큼 모든 발달단계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또래와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3).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교사폭행사건 등 대인관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문제,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우울증, 조현병, 대인관계로 받은 스트레스 등이 자살시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박미라, 2015).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또래 상호간에 바람직한 관계 확립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스트레스 등 부정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Anthony, 1987), 특히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해리, 조한익, 2005). 즉, 회복탄력성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Werner 교수는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김주환, 2011).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면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인간관계는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애착관계를 형성해오던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애착의 대상이 부모로부터 또래, 교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된다(박정주, 2011). 문주희(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보다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또래를 중요한 애착대상으로 여기고 애착을 형성하며 교사와 또래를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수의 연구들이 교사에착과 또래애착이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Pianta(1999)와 Thompson(1994)는 교사와의 좋은 관계가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기술을 조절해주며, 학생들의 탐색 동기를 지지해주고, 교실에서 경험한 감정들을 관리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정서조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맺는 관계의 질이 학생들의 인

지, 정서,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김종백, 김남희, 2009)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정된 교사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 관계는 서로 흥미나 관심을 공유하고, 주위로부터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준다(고운주, 김영신, 노주선, 2000). 이는 또래애착이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얻게 해주며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는데 중요함(유미너, 2013)을 시사한다.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Daniel(2010)의 연구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에서 맺는 안정된 애착, 관계, 자원들과 회복탄력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rooks와 Goldstein(2003)은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 수용, 안정된 애착관계가 회복탄력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지만(2014)의 연구에서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의 기대감은 회복탄력성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주소영, 이양희(2012)의 연구에서 교사애착이 회복탄력성과 상당한 정적 상관을 보여 청소년이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된 신뢰관계를 갖는다면 그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의 기대감 및 교사 지지가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명숙, 2013; 김정민, 2010; 좌문경, 2009; 주소영, 2008; 최지만, 2014)와 친구지지가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명숙, 2013; 김정민, 2010; 좌문경, 2009; 주소영, 2008)가 일관되게 보고되어 있어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박은민(2010)의 연구에서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김경화(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안정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에서 교사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이인숙, 2005; 허의화, 2013). 또한 양숙경, 문혁준(2012)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수희(2009), 조혜진(200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변인으로 또래애착이 나타났다. 이처럼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오수현, 2010; 정미선, 2010)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교사, 또래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가치 있고 사랑받을만한 존재라고 여기게 됨을 알 수 있으며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utter(1987)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분명한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uckner, Mezzacappa와 Beardslee(2003)의 연구에서는 높은 지적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이 탄력적인 집단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김형태(2012)의 연구

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매우 크고 뚜렷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지영, 박태영(201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중요한 타인인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따뜻한 배려, 존중,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형성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자아존중감은 인간관계를 잘 맺게 도와주고, 사회성과 긍정성을 높여주어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높여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교사,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데 그 관계 안에는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더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교사애착과 또래애착,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사, 또래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하고, 애착형성을 통해 스트레스, 어려움,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교육장면, 상담장면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교사애착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교사애착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애착, 부모양육태도 등 부모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정립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하며 교사와 또래를 중요한 애착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복탄력성보다는 자아탄력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자극에 대한 반응과 적응을 연구하기 위해 제시된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이다. 때문에 잠재적인 역경에서 개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은 역경에의 노출을 전제로 하며 역동적인 과정인 회복탄력성과는 차이가 있다(Masten, 2001). Robert와 Masten(2004)은

만약 회복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간주할 경우,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개인의 문제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지현, 201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계속적으로 변화 가능하고, 부정적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측 가능한 회복탄력성의 연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사에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교사에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교사에착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사관계와 또래관계를 재조명 하고자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들과의 관계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 및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교사에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충남권 소재의 2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여 고등학생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는 2014년 9월 22일에서 10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서 배부한 설문지 330부 중 299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연구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63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중에서 남자는 120명(46%), 여자는 143명(54%)으로 분포되었다. 연구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주희(2012) 연구에서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보다 청소년 중기인 고등학생에게 교사, 또래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나 부모보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교사에착 척도

본 연구에서 교사에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학생-교사 애착 관계 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ARS)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한 도구로 김남희(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신뢰성(4문항), 민감성(4문항), 접근가능성(3문항), 수용성(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4문항이다. 모든 문항 검사는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에게 안정을 느끼며 애착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남희(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교사에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신뢰성 .77, 민감성 .71, 접근가능성 .63, 수용성 .70, 전체 .89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문항의 수정과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8문항), 소외감(7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25문항이다. 모든 문항 검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신뢰감 .85, 의사소통 .85, 소외감 .66, 전체 .89로 나타났다.

자이존증감

본 연구에서 자이존증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이존증감 척도를 김택호(2004)가 번역하고, 전은영(2010)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 검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이존증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단일요인으로 총 문항 수는 10문항이다.

전은영(2010)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자이존증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인 YKRQ-27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개의 요소와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3문항씩 구성되고 총 문항 수는 27문항이다. 통제성의 하위요인으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이 있고, 긍정성의 하위요인으로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이 있다. 모든 문항 검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신우열 외(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통제성 .74, 긍정성 .84, 사회성 .88 이었으며, 여지영, 박태영(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통제성 .76, 긍정성 .86, 사회성 .85, 전체 .9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ver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를 검토하였다. 둘째, 교사에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사에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완전매개인 경우 매개효과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부분매개인 경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이 요구(노형진, 2014)되기에 매개효과의 크기가 유의미한지를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에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교사에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계수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2-3	3	4	4-1	4-2	4-3
1. 교사애착총점	1													
1-1 신뢰성	.86**	1												
1-2 민감성	.81**	.56**	1											
1-3 접근가능성	.82**	.61**	.52**	1										
1-4 수용성	.85**	.65**	.62**	.63**	1									
2. 또래애착총점	.20**	.22**	.16*	.13*	.17**	1								
2-1 신뢰감	.22**	.22**	.16**	.14*	.20**	.93**	1							
2-2 의사소통	.30**	.29**	.27**	.17**	.24**	.86**	.80**	1						
2-3 소외감	-.05	-.01	-.09	.00	-.06	.63**	.39**	.25**	1					
3. 자아존중감	.33**	.35**	.23**	.24**	.26**	.43**	.33**	.38**	.35**	1				
4. 회복탄력성총점	.34**	.38**	.27**	.16**	.31**	.58**	.52**	.54**	.34**	.72**	1			
4-1 통제성	.31**	.33**	.24**	.18**	.26**	.43**	.38**	.41**	.24**	.57**	.83**	1		
4-2 긍정성	.31**	.33**	.22**	.19**	.30**	.47**	.43**	.42**	.28**	.70**	.85**	.57**	1	
4-3 사회성	.23**	.29**	.23**	.04	.21**	.55**	.49**	.53**	.32**	.53**	.83**	.59**	.52**	1

** $p < .01$, * $p < .05$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33, p<.01$)가 나타났으며 교사애착과 회복탄력성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34, p<.01$)를 보였다.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43, p<.01$)가 나타났으며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8, p<.01$)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72, p<.01$)가 나타났다.

상세히 살펴보면 교사애착의 모든 하위요인과 회복탄력성전체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사애착의 신뢰성이 회복탄력성전체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38, p<.01$)를 보였다. 또한 교사애착전체와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긍정성이 교사애착전체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r=.31, p<.01$)를 보였다.

또래애착의 모든 하위요인과 회복탄력성전체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의사소통이 회복탄력성전체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54, p<.01$)를 보였다. 또한 또래애착전체와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사회성이 또래애착전체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55, p<.01$) 보였다.

교사애착의 모든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애착의 신뢰성이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35, p<.01$)를 보였고, 또래애착의 모든 하위요인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38, p<.01$)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이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70, p<.01$)를 보였다.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회복탄력성에 대한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F	공차
	B	표준오차				
교사애착	.10	.05	.09	2.26*		.89
또래애착	.35	.05	.32	7.54***	138.66***	.81
자아존중감	.39	.03	.55	12.48***		.76

$R^2(\text{adj.}R^2)=.62(62\%), \text{Durbin-Watson}=1.83$

*** $p<.001$, * $p<.05$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사애착($t=2.26, p<.05$), 또래애착($t=7.54, p<.001$), 자아존중감($t=12.48, p<.001$)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자아존중감($\beta=.55$), 또래애착($\beta=.32$), 교사애착($\beta=.09$)순이라고 할 수 있다.

공차한계 값은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83으로 기준 값인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기법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해야 매개변수의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로 판단하며,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고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경우 매개변수의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로 판단한다.

또한 완전매개인 경우 매개효과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부분매개인 경우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이 요구(노형진, 2014)되기에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크기가 유의미한지를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Sobel(1982)의 Z공식은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으로, Z값이 ±1.96 이상일 경우 $p < .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 < .01$ 수준, ±3.30 이상일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사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사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단계 (독립 → 매개)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33***	.11	31.36***
2단계 (독립 → 종속)	교사애착	회복탄력성	.34***	.12	33.90***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12* .68***	.53	147.75***

*** $p < .001$, * $p < .05$

독립변인인 교사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beta=.3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며, 독립변인인 교사에착이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beta=.3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에착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beta=.68,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교사에착이 유의한 영향력($\beta=.12, p<.05$)을 갖고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더 작아졌으므로 ($\beta=.34 > \beta=.12$), 교사에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사에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에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에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Z=5.25,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단계 (독립 → 매개)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43***	.18	58.88***
2단계 (독립 → 종속)	또래애착	회복탄력성	.58***	.33	131.15***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33*** .58***	.61	202.24***

*** $p<.001$

독립변인인 또래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4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며, 독립변인인 또래애착이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beta=.5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beta=.58,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으며, 이때 또래애착이 유의한 영향력($\beta=.33, p<.001$)을 갖고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더 작아졌으므로 ($\beta=.58 > \beta=.33$),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Z=6.64,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충남권 소재의 2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녀 고등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와 논의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교사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박은민, 2010)와 일치한다. 또한 교사애착이 높은 아동들은 자아존중감도 높다는 연구결과(김경화, 2011; 이인숙, 2005; 허의화, 2013)와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에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교사와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지지받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애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애착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김경화, 2011)는 결과도 있어 학교생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교사애착보다 부모애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관계의 완충 역할을 하며(O'Connor & McCartney, 2007), 부정적인 결과들을 방지해주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김종백, 2012)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 이혼가정, 과도한 입시교육과 같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교사가 할 수 있으며, 교사애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사애착과 회복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사애착 하위요인 중 신뢰성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교사애착이 회복탄력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의 지지를 받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된 신뢰관계를 갖는다면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결과(주소영, 이양희, 2012)를 반영한다. 또한 김종백(2012)은 학생-교사관계가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교사가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박은민, 2010; 심수정, 2003; 양숙경, 문혁준, 2012; 조혜진, 2006)와 일치하며,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수희, 2009; 채영이, 2006)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오수현(2010), 정미선(2010)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 및 지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양숙경, 문혁준, 2012). 즉, 안정적인 또래관계 속에서 서로의 걱정이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소년들은 또래친구들의 이해와 관심, 지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중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수희, 2009; 오송희, 1998)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또래와의 안정된 애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래애착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애착이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최지만, 2014)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지지가 회복탄력성 발달에 중요한 자원이 되며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정민, 2010; 좌문경, 2009)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지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집단에서 지지받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자원임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이 역경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래 간에 의사소통 및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여지영, 박태영, 2013)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기출청소년들이 사회적 탄력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현중, 2013)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김형태(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매우 크고 뚜렷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에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청소년은 회복탄력성이 높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직접효과를 회복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면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자체가 심리·정서 및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변인을 매개하거나 중재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이주리, 2008) 두 변인 사이에 매개 및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이순희, 허만세, 2014)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교사애착, 교사지지 및 교사와의 관계(강나정, 2008; 구경호, 2014; 김경화, 2011; 오수현, 2010)에 영향을 받으며 또래애착, 친구지지 및 또래관계(강나정, 2008; 김수희, 2009; 김지영, 2009; 양숙경, 문혁준, 2012; 오수현, 2010; 정미선, 2010; 조혜진, 2006; 채영이, 2006)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고,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김형태, 2012; 여지영, 박태영, 201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교사와 또래와 신뢰로운 관계 안에서 따뜻한 배려, 존중,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 어려움과 역경 상황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와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교사와 또래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그동안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부모애착, 부모양육

태도 등 부모에 초점을 둔 연구에 치중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와 또래와의 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역경,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며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을 형성하여 수용되고 지지되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적인 교육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와 또래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살, 우울증, 조현병,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타인과의 애착관계와 개인내적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힘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회복탄력성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힘의 원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혹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이자 지지이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인 힘 등이 결정적인 역할(김종백, 2012)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은 물론 교사, 또래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 충남권 소재의 2개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집단의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자기 보고식 자료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응답자가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교사애착, 또래애착을 변인으로 실험집단 1, 2와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회복탄력성 지수를 비교 연구한다면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을 통해 변화하는 회복탄력성 지수를 살펴볼 수 있어 연구결과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학년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여 교사와 또래와 애착을 형성해왔던 기간이 달라 교사애착, 또래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주희(2012) 연구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 교사, 또래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학

년에 따라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매개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회복탄력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방법을 제공해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나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구경호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공감, 자아존중감, 학습동기와 학업탄력성 간의 구조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화 (201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교사애착간의 종단적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 간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3). 연변지역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탄력성,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0).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백 (2012). 학생-교사관계와 학생의 심리적 탄력성. 教育心理研究, 26(2), 523-541.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教育心理研究, 23(4), 697-714.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경기: 위즈덤하우스.
- 김지영 (2009). 남녀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과 자아존중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청소년의 교사·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 김현중 (2013). 사회적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탄력성의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 (2012). 그룹홈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0), 211-234.
- 노형진 (2014). 회귀분석과 일반선형모형. 서울: 한울.
- 문주희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라 (2015). 자살시도 청소년...우울증이 원인이다.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03>에서 검색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박정주 (2011). 교사애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333-352.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人間發達研究, 19(2), 115-130.
- 여지영, 박태영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21-145.
- 오송희 (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현 (201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녀 (2013).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허만세 (2014).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학교사회복지, 27, 253-274.

- 이인숙 (2005).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 모 애착 및 교사애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2008).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人間發達研究*, 15(2), 87-102.
- 이지현 (2012). 만 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전은영 (2010). 애착과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선 (2010). 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25(0), 140-170.
- 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3).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좌문경 (2009).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소영, 이양희 (2012). 연구논문: 청소년 잠재비행, 부정적 자동적 사고, 탄력성(resilience)의 관계에서 교사애착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8), 103-142.
- 채영이 (2006). 중학생이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만 (2014).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교사의 기대감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꽃동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의화 (201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교사애착의 효과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thony, E. J. (1987).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In E. J. Anthony & B.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p. 3-48). New York: Guilford Pres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1173-1182.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ooks, R., & Goldstein, S. (2003). *Nurturing resilience in our children*. New York.: The McGraw Hill Company.
- Buckner, J. C., Mezzacappa, E., & Beardslee, W. R. (2003).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youths living in poverty: The role of self-regulatory proces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39-162.
- Daniel, Brigid. (2010). Concepts of Adversity,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Discussion in the Context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Social Policy & Society*, 9(2), 231-241.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 O'Connor, E., & McCartney, K. (2007). Examining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achievement as part of an ecological model of develop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2), 340-369.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Orthopsychiatry*, 57(3), 316-331.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w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p. 25-52).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Resilience of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Ha - Ri Lee Young - Sun Lee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eacher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on Resilience for adolescents. In addition,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Self-Esteem plays among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Resil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3 high school freshmen from two high schools located in Daejeon and Chungnam.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are Student 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STARS), the scale of Peer Attachment, the scale of Self-Esteem, and the Scale of Resilience for adolescent.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 stud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Resilience. Second, the study showed that Teacher Attachment directly affected Resilience while affected by the indirect route which mediates Self-Esteem. It showed that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Teacher Attachment and Resilience. In addition, Peer Attachment directly affected Resilience while affected by the indirect route which mediates Self-Esteem. It also showed that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Peer Attachment and Resilience.

Through it,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the adolescents in adversity and difficult situation, could overcome hardships and increase the power that copes with a flexibility through the formation of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peers.

Key word: Adolescen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elf-Esteem, Resilience